

배외拜外사상과 배외排外사상

— 크리스마스 음악 행사의 프로를 보고 —

나 운 영

배외사상拜外思想과 배외사상排外思想은 비록 발음은 같으나 그 내용은 정반대이다. 오늘날 교회음악계에 있어서도 두 사상의 폐해弊害를 많이 찾아 볼 수 있다.

[편집자 주] 배외[拜外]: 외국 사람이나 외국의 문화, 물건, 사상 따위를 맹목적으로 숭배함.

배외[排外] 외국 사람이나 외국의 문화, 물건, 사상 따위를 배척하여 물리침.

일례를 들어 음악회의 출연자 선정에 있어서 한국 사람 가운데 우수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기술적으로 열등한 외국인을 내 세우는 것이나, 곡목 선택에 있어서 세계 각국 캐롤 순례에 한국 것만을 제외한다는 것도 배외사상拜外思想의 하나의 발로가 아닌가 생각한다.

이제 금년도 크리스마스 음악 행사에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볼 때 그 전부가 외국 작품 일색인 것은 심각히 생각해야 할 문제이며 더욱이 그 작품이 우수한 작품이라면 모르되 실로 음악 이전에 속하는 곡을 택하여 연주하는 데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하기 곤란하다. 이것은 배외사상拜外思想이라기 보다 도리어 배내사상排內思想(?)이라고 해두는 것이 적절하지나 않을까? 우리가 외국문화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시대는 이미 지났을 뿐만 아니라 그 받아들이는 방법에서도 어디까지나 이를 한국적으로 섭취해야 할 것인데 우리 문화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와 같은 과오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.

나는 지금까지 배외사상拜外思想에 대하여 논했다. 그러나 이보다 더 위험한 것은 배외사상排外思想이라고 본다. 배외사상拜外思想이 사대주의와 통한다고 한다면 배외사상排外思想은 국수주의國粹主義와 통한다고 할 수 있다.

우리가 아직도 후진성을 극복하려면 외국문화를 한국적으로 섭취해야 할 단계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를 배격한다면 완전히 고립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. 그러므로 우리는 배외사상排外思想에 앞서 배내사상排內思想(?)도 가져야 할 것이다. 즉 음악회의 출연자 선정이나 곡목 선택에 있어서도 우리의 것을 위주로 하여 이를 사랑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. 다만 여기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은 특히 소위 한국작품에 외국 명작의 모방에 그친 것은 배격하고 어디까지나 민족적인 형식과 내용을 갖춘 것이어야만 할 것이다. 그런데 혹자의 말에 의하면 성가에 있어서는 구태여 민족적인 것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 이는 자기의 기술 부족을 카무플라주(위장) 하려는데 불과하다. 왜냐하면 도무지 시대성과 민족성을 떠난 작품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.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헨델 작곡의 <오라토리오 메시아>와 세계 각국의 캐롤을 듣게 된다.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생리적으로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것을 공감하게 된다. 그러므로 앞으로는 외국작품의 모조품이 아닐 뿐 아니라 더욱이 국내작품의 모조품이 아닌—민족적이며 아울러 독창적인 작품이 외국작품과 어깨를 겨누어 연주 소개되기를 바란다.

끝으로 비록 그 발음은 같으나 배외사상拜外思想과 배외사상排外思想은 내용이 정반대라고 먼저 나는 말했다. 그러나 우리의 것을 찾고 우리의 것을 창조 보급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 두 사상이 꼭 같은 해독을 준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런 점에서는 배외사상拜外思想과 배외사상排外思想은 일맥 상통되는 점이 있는 것을 또한 느끼게 되는 것이다.